

●●● 윤상기 축산연구소 소장

## 세계속에 우뚝 선 축산 부국을 위하여



▲ 윤상기 소장

축산연구소는 지난 1906년 탄생하여 100여년 동안 국내 축산업과 동반 자로써 유전, 영양, 사양, 시설, 환경, 기술 보급 등에 힘을 기울여왔다. 덕분에 국내 축산업은 국민의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잡아 왔고, 변해가는 국내외 정세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축산연구소는 경기도 수원에 본소 및 축산생명환경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충남 천안에 축산자원개발부, 강원도 대관령에 한우시험장, 전북 남원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자리잡고 있다.

본고는 국내 축산연구의 산실인 축산연구소 윤상기 소장을 만나 축산업 현실과 축산연구소의 청사진에 대해 인터뷰 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30년 축산기술 전달, 오직 한길

윤상기 소장은 지난 1974년 축산연구소(당시 축산기술연구소)에 처음 입사한 이후 대관령지

소장, 축산물이용과장, 축산기술부장을 거쳐 지난 2003년부터 축산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30년이 넘도록 오직 축산연구 및 기술 보급에 매진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충남대학교 겸임교수

를 역임하면서 후학양성에도 힘쓰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윤소장은 1990년에는 일본 대학교에서 농수의학부 반추 영양생리를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젖소의 신체충실지수와 생선성 등 105편의 논문과 축산학개론 등 16권의 책을 만들어 축산학도 및 축산인들의 좋은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윤상기 소장은 축산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양축농가의 현장에로 기술을 해소하고, 소비자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 친환경적 축산업을 위한 연구와 첨단생명공학 기술의 개발로 축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윤소장의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

### 소비자에 맞는 맞춤형 연구에 중점

축산분야는 지난 1997년 6조9천억 규모에서 2004년에는 10조8천억으로 급성장하면서 국내 농업에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DDA 및 한미 FTA협상 등 풀어가야 할 당면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에 놓였다.

윤상기 소장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근의 축산업은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요구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자와 함께하는 연구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됨을 강조하였다. 즉 맞



▲ 경기도 수원에 위치해 있는 축산연구소 본소 전경

춤형 고객관리가 되어야 모든 축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농가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연구해 나가는 한편, 정부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지원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추진해나갈 뜻을 밝혔다.

특히 축산연구소는 지난해 45건의 특허를 받아 33건을 기술이전시키는데 성공할 정도로 산업화 비율(평균 68.8%)이 어느 연구기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양계분야에서도 지난해 특허를 받아 올해 기술이전에 성공한 비파괴 계란 측정기 에그라이저가 개발되면서 유통업계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축산연구소는 기술이전을 한 이후에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실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쏟고 있다.

### 재래닭 복원 금지탑

농진청 축산연구소 축산지원부(부장 이상진) 기금과는 지난 1956년 대전시 유성에 위치해 있었으나 지난 2004년 11월 충남 천안시 성환으로 모든 시설과 기금을 이동시켰다.

가금종합연구단지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시설이다. 이 시설을 기반으로 저렴하고 고급단백질의 공급 특성을 살려 농가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 기후 특성에 맞는 계사구조 및 환기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축산연구소에서는 이미 지난 10여년 동안 재래닭 복원작업을 마치고 재래닭 3계통(흑색, 황

갈색, 적갈색)에 대해 특허청에 상품등록을 준비했으나 상품보다는 유전적 가치가 높은 점이 인정되어 축종중에서 처음으로 유전자원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유전자원으로 등록될 경우 국내에 사육되고 있는 순수 한국 재래종들도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 재래닭 시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연구소는 이를 통해 국내 재래닭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국제 화시대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을 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 수출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

### 인재양성에 주력

윤상기 소장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 축산부국을 이루는 중요한 밑거름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우수 논문자들을 선발해서 젊은 축산과학자상을 제정, 운영해오고 있다. 이미 지난 10일 전국에 있는 석, 박사를 총 망라해 접수를 받은 결과 3명의 우수 축산과학자를 선정하였는데, 앞으로는 축산분야 중 축종별로 나누어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곳에서 채택된 논문들은 1년에 2차례 영문으로 발간되는 논문집에 게재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축산연구소 논문집을 통해 게재되는 논문(영문판)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 뿐 아니라 외국에 널리 알려면서 국내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소장은 축산연구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직은 모두 343명인데 이는 지난해 보다 10명이 늘어난 것이고, 이



▲ 2005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여



▲ 지난 5월 10일에는 젊은 축산과학자를 선발하여 시상한 바 있다(논문 포스터 앞에서 수상자들과 함께).

중 2명이 가금분야에 새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가금 산업에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세계 신교류에 적극 대응

축산연구소는 지난 4월 미국 텍사스 에엠(A&M)대학교 컨퍼런스 센터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연구실을 개소하고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 텍사스 에엠대학교는 수년동안 미국내 전체 대학에 대한 평가에서 축산학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축산분야 세계 최고의 대학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해외연구실은 세계 최고의 축산 기술 개발은 물론 FTA/DDA 등 최근 세계 무역시장의 신교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에 목적을 갖고 있다.

해외연구실에는 현재 연구원 1명을 상주시켜 국제 공동연구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함은 물론 별도의 상호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달부터는 텍사스 에엠에이 대학 연구원이 국내 축산 연구소에서 연수가 예정되어 있어 보다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윤상기 소장은 우리나라 축산업이 선진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는 적어도 전세계 5위안에 들 수 있는 축산 기술대국이 될 수 있도록



▲ 텍사스 에엠대학교내에 해외연구실을 설치하고 신기술 도입에 가속화를 기하고 있다(현판식 후).



▲ 텍사스 에엠대학교내에 설치된 해외연구실 현판 내용

록 목표를 삼고 있다.

윤상기 소장은 최근 DDA/FTA 등으로 어려움이 갈수록 계속되고 있지만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진해 나갈 때 축산업의 발전은 계속 될 것이라 내다보았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